

국외 출장 결과보고서

과 제 명	성평등관점에서 본 저출산 대응전략 연구: 한국과 일본의 비교연구					
출장목적	- 일본 젠더연구자들의 저출산정책 평가 및 자문 청취 - 일본 30대 비혼 청년 대상 FGI 진행 - 일본 설문조사 조사진행 협의					
출장기간	당초	2018.7.27(금) - 7.31(화)		변경	변경사항 없음	
출 장 지	당초	일본(도쿄)		변경	변경사항 없음	
출 장 자	홍승아 선임연구위원, 최인희 연구위원 (가족·저출산연구센터)					
출장비용	항공료	1,343천원	체재비	1,501천원	출장비	1,605천원
출장업무 처리 개요	방문기관 및 면담자			주요 논의사항		
	Junko Nishimura 교수 (오차노미즈대학교 젠더연구소)			○ 오차노미즈대학교 젠더연구소의 저출산 연구동향 및 최근 이슈 논의		
	Setsuya Fukuda 박사 (국립사회보장인구연구소) Rie Moriizumi 박사 (국립사회보장인구연구소)			○ 최근 국제 비교연구의 내용 및 연구결과 논의 ○ 일본 저출산 정책 동향 논의 ○ 본원 국제포럼(2018.9 개최예정) 전문가 초청 및 개최계획 논의		
	Soma Naoko 교수 (국립요코하마대학교)			○ 성평등과 돌봄, 저출산 이슈 논의 및 자문 청취 ○ 본원 국제포럼(2018.9 개최예정) 전문가 초청 및 개최계획 논의		
	Manabe Taichi (도쿄도 세타가야구 자녀양육지원 정책 담당 공무원)			○ 세타가야구 저출산 정책 동향 소개 및 논의		
	일본 30대 비혼 청년 대상 FGI 및 1:1 면접 진행 (총 12인)			○ 가족, 결혼과 자녀출산, 자녀양육, 일과 일·생활균형, 저출산과 정책 지원 등에 관한 면접조사 수행		

※ 상세한 업무처리 및 세부내용은 별도 붙임

성평등관점에서 본 저출산대응전략:
한국과 일본의 비교연구

해외출장 결과 보고서

2018. 8. 8

보고자 : 홍승아(가족·저출산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최인희(가족·저출산연구센터 연구위원)

※ 해외출장 결과보고서 상세내용은 가족·저출산연구센터 홍승아 선임연구위원 (02-3156-7149),
최인희 연구위원 (02-3156-7105)에게 문의바람

I. 출장개요 및 주요 논의사항

1. 출장목적

- 일본 젠더연구자들의 저출산정책 평가 및 자문 청취
- 일본 30대 비혼 청년 대상 FGI 진행
- 일본 설문조사 조사진행 협의

2. 출장개요

가. 출장지: 일본 도쿄

나. 출장자: 본원 홍승아 선임연구위원, 최인희 연구위원

다. 출장기간: 2018.7.27(금) - 2018.7.31(화), 4박 5일

라. 비용부담: 본원 연구사업비

3. 주요 출장내용

가. 일본 젠더연구자들의 저출산정책 평가 및 자문 청취

☐ 일본 젠더연구자 면담

방문일자	이름	소속	주요 논의내용
2018.7.30	Junko Nishimura 교수	오차노미즈대학교 젠더연구소	- 오차노미즈대학교 젠더연구소의 저출산 연구 동향 및 최근이슈 논의
2018.7.30	Setsuya Fukuda 박사	국립사회보장인구연구소	- 최근 국제 비교연구의 내용 및 연구결과 논의 - 본원 국제포럼(2018.9 개최예정) 전문가 초청 및 개최계획 논의
2018.7.30	Rie Moriizumi 박사	국립사회보장인구연구소	- 일본 저출산 정책 동향 논의
2018.7.31	Soma Naoko 교수	국립요코하마대학교	- 성평등과 돌봄, 저출산 이슈 논의 및 자문 청 취 - 본원 국제포럼(2018.9 개최예정) 전문가 초청 및 개최계획 논의
2018.7.31	Manabe Taichi	도쿄 세타가야구 공무원	- 도쿄 세타가야구 저출산 정책 동향 논의

□ 주요 논의내용

1) Junko Nishimura 교수 (오차노미즈대학교)

- (저출산 정책에 대한 평가) 엔젤플랜의 시행으로 보육원의 양적 확대, 육아휴직 사용 촉진 등의 성과가 있었으며 이를 통해 여성의 취업률이 제고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현재 일하는 방식의 개혁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 등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장시간 근로문화가 변화될 것으로 전망함. 일본에서 남성의 가사, 자녀양육 참여는 높지 않은 수준인데 이는 장시간 근로문화가 팽배한 직장문화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가족 가치 때문이라고 생각됨. 또한, 일본 육아휴직제도의 경우 부부가 모두 제도를 이용할 경우 14개월(bonus 2 months) 이용할 수 있지만 일하는 방식의 개혁 없이는 남성의 육아휴직제도 참여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되지 않음
- (최근 정책동향) 최근 저출산 관련 새로운 정책은 1) 3-5세 대상 무상교육(세부 내용은 2018년 여름 구체화 될 예정), 2) 저소득층 대상 대학교 등록금 무상 지원사업(2020년 부터)임. 이 중 저소득층 대상 대학교 등록금 지원사업은 교육비 부담이 큰 가족을 대상으로 대학교육의 비용장벽을 낮추는 것이 정책 목표임
- (저출산 전망) 일본에서는 가족이 여전히 일정부분 사회적 안전망(safety net)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수의 청년들은 결혼하면 삶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고 염려하는 측면이 있으며 이로 인해 결혼과 가족형성을 주저하는 경향이 있음
- (성평등과 저출산) 남녀공동참획법에 성평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음. 최근 work life balance 이슈는 성평등 자체보다는 저출산 정책의 일환으로 성평등을 보는 관점이 더 우세함

2) Setsuya Fukuda 박사 (국립사회보장인구연구소)

- (저출산 정책) 일본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인구구조의 변화이지만, ‘젠더’ 역시 매우 중요한 이슈임. 여성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면 추가 노동력 확보 + GDP 증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에 일본 정부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일본 기업에는 근로자의 헌신(commitment/loyalty)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조직문화 때문에 여성이 결혼하고 자녀를 양육하게 되면 조직에 헌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어져 승진이 잘 되지 않는 mommy track에 처하는 경우가 많음. 또한, 일본의 사회보장제도는 여전히 one-bread winner system에 기반하고 있으며, 정부도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와 보수적인 가족가치 유지 방식에 대해 ambivalent한 태도를 취하고 있음
- (육아휴직제도) 일본의 육아휴직제도는 제도설계 측면에서는 스웨덴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정규직일 경우 이용이 용이하므로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의 수가 제한적임

- (남성 참여) “Iku-men” project (2010~)는 정보제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가시적인 정책효과를 평가하는 것이 어렵지만 정책 시행 이후 Iku-men에 대한 사회적 규범은 확산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또한, 최근 남성의 일하는 방식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남성의 가사/자녀양육 참여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어 남성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는 상황임

3) Rie Moriizumi 박사 (국립사회보장연구원)

- (저출산 정책) 일본의 저출산 정책은 1989년 합계출산율 1.57 쇼크로 인해 시작되었으며, 이후 30여년간 저출산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2016 합계출산율 1.44, 2017년 1.43). 보육지원 중심의 엔젤플랜(1995-1999) 시행 이후, 일가정양립을 위한 직장문화 조성을 저출산 정책에 포함시킨 신엔젤플랜(2000-2004) 등 일하는 방식의 개혁이 출산율을 촉진시킨다는 가정에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 또한, 2000년대 「Promotion of work-life balance policy involving private enterprises」 법 제정으로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일과 육아를 양립하기 쉬운 고용환경을 정비하도록 기업의 work life balance 행동계획 신고를 의무화하였음. 최근에는 2016년 일본 총인구 1억을 유지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져 ‘일본일억총활약 플랜’이 전개되기 시작함
- (일하는 방식의 개혁) 2005년 법률 시행 후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에서는 사업주 행동계획을 작성하여 신고하게 되었으며, 기업/업종의 특성에 따라 확산 정도가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일생활균형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커지고 있음. 다만, 일반적으로 대기업 근로자보다는 중소기업의 근로자가 육아휴직제도 이용/일생활균형 정책 활용하기 어렵고, 근로자 규모, 정규직/비정규직 여부에 따라서도 이용률에 차이가 있음. 현재 일본의 일생활균형 정책/제도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아직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의 일생활균형을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 않음

4) Soma Naoko 교수 (국립요코하마대학교)

- (자녀양육지원) 2012년 자녀·육아지원법, 취학 전 자녀에 관한 교육, 보육 등의 종합적 제공 추진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자녀·육아 지원법 및 취학 전 자녀에 관한 교육, 보육 등의 종합적 제공 추진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및 정비) 통과로 통합적인 보육·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음. 또한, 2015년부터 자녀·육아 신제도를 시행하여 보육의 양적 확대와 함께 질적 수준 제고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지자체(시/정/촌)가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저출산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 (수요조사) 아동양육·노인돌봄 지원 관련 정책 설계 시 지자체에서 지역주민의 정책지원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수요조사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정책을 설계·시행하고 있음

5) Manabe Taichi 씨 (세타가야구 자녀양육지원 정책 담당 공무원)

- (도쿄 세타가야구) 도쿄도 23특별구 중 하나로, 도쿄도 내 인구·세대수가 가장 많은 지역임
- (인구동향) 최근 세타가야구에는 미취학아동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출생률이 높아지는 요인은 복합적이겠으나 젊은 세대(18-29세의 전입 증가)의 인구 유입이 많은 것도 이유가 될 것이라고 예상함. 이러한 변화로 세타가야구 보육원 이용률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대기아동의 수가 증가하고 있어 주요한 현안으로 다루어지고 있음
- (아동조례) 1994년 중앙정부에서 아동조례(아동의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세타가야구에서도 자체 조례를 제정하였음. 이후, 2012년 아동 권리 침해 시 이를 구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추가하는 1차 개정이 이루어졌음. 세타가야구 아동(종합)조례의 목적은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마을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 세타가야구 아동(어린이)계획을 수립하였음. 아동계획은 자녀양육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10년 주기로 수립되고 있음
- (중점사업) 최근 중점사업은 1) 임신기부터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과 2)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것임. 세타가야구에서는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역할 및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1) 산후케어사업: 자녀 출산 후 아빠는 직장에 복귀하고 엄마가 혼자 육아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 산후케어 사업(민간 위탁방식, 데이케어, 또는 숙박서비스(7박까지 이용가능) 제공 → 개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닌 아동센터에서 신청, 비용은 통상 1박에 6,000엔, 저소득층은 비용지원 있음)을 추진하고 있음(8개소 → 15개소로 사업 확대).
 - (2) 아동학대 예방 사업: 집에서 자녀를 양육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아동관(한국 공동육아나눔터와 유사)을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임. 고립된 가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아동학대 예방에 있어 마을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
 - (3) 모자건강지원사업(가정방문): 자녀를 출산하면 모자건강 확인과 자녀양육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소득수준 관계없이 모든 가족에게 제공)도 추진되고 있음. 본 사업을 통해 고립된 환경에서 양육되는 아동의 상황을 파악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

나. 일본 30대 비혼 청년 대상 FGI 및 1:1 면접 진행 (총 12인)

□ 면접조사 참석자 정보

번호	연령 (만 세)	성별	혼인 상태	가구형태	학력	직업	정규직 여부	월평균 개인소득(엔)
1	32	남	비혼	1인 가구	대졸	사무직(제조업 물류기획)	정규직	200,000
2	36	남	비혼	1인 가구	대학원 졸 (석사)	엔지니어	정규직	230,000
3	31	여	비혼	1인 가구	대졸	아르바이트 2개 (출판, 사무지원)	비정규직	200,000
4	33	여	비혼	1인 가구	대졸	연구개발 (제약회사)	정규직	400,000-450,000
5	32	남	비혼	부모님과 동거	대졸	댄서, 파트타임(방송예능)	비정규직	200,000
6	36	남	비혼	1인 가구	대졸	IT계열	정규직	300,000-350,000
7	30	여	비혼	1인 가구	대졸	광고·홍보 사무직(교육)	정규직	300,000-320,000
8	34	여	비혼	부모님과 동거	대졸	의류판매업 +아르바이트 2개	비정규직	200,000-230,000
9	31	여	비혼	1인 가구	대졸	인재 컨설팅	정규직	350,000-400,000
10	38	여	비혼	1인 가구	전문대 졸	사무직(의료)	비정규직	230,000-250,000
11	37	여	비혼	1인 가구	대학원 졸 (석사)	사무직 (IT분야 인사관리)	정규직	210,000
12	36	여	비혼	1인 가구	대졸	사무직(서비스업)	정규직	250,000-300,000

□ 주요 면접조사 내용

1) 가족, 결혼과 자녀출산

- 현재 거주형태 및 (원)가족관계, 접촉빈도 등
- 결혼에 대한 생각, 결혼의향 및 계획 (맞벌이 선호도 포함)
- 출산의향 및 계획
- 일본의 가족가치

2) 자녀양육

- 일본사회에서 남성의 자녀양육 참여에 대한 평가
-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본인과 배우자(파트너)의 자녀양육 참여 분담형태

3) 일과 일·생활균형

- 직업력
- 현재 직장특성 및 직장생활 전반(근로형태, 근로시간, 일의 가치, 스트레스 등),
직장문화(유연근무제, 일·생활균형 지원 문화 등) 등에 관한 논의
- 퇴근 및 주말 생활
- 일·생활균형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 희망 은퇴 시기 등

4) 저출산과 정책 지원

- 저출산에 대한 평가 및 정책지원 필요성
- 일하는 방식의 개혁 등 일본의 일·생활균형 정책 체감도 및 평가, 성평등 이슈 등 논의

5) 기타

- 현재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 미래에 대한 불안
- 일본사회의 젠더 이슈 등

다. 일본 설문조사 조사진행 협의

담당자: Kenta Nishiyama

☐ 실사 완료 및 자료 검증 작업 진행

- (성별) 남성 51.1%, 여성, 48.9%
- (연령) 20대 20.3%, 30대 50.9%, 40대, 28.8%
- (고용지위) 상용근로자 56.3%, 임시/일용근로자 18.0%, 자영업/무급종사 7.0%, 비취업 18/7% 등

☐ 검증완료 data 송부: 8월 2주차(예정)

II. 일본 저출산 정책 관련 참고자료 목록

- 일본 후생노동성 저출산 관련 통계자료
- Divergence in women's employment in Korea and Japan: What shapes the different patterns around childbirth? (Junko Nishimura 교수 외)
- How to achieve gender equity in Japan? Trends and the latest policy initiatives (Setsuya Fukuda 박사)
- Recent trends on measures against low fertility in Japan (Rie Moriizumi 박사)
- 도쿄 세타가야구 자녀양육지원 기본계획 등